김정렬 차관, “트램 성공 정착 위해 노력 관심 필요” 강조
16일 오송 트램 시험선 현장 방문…연구개발 성과 점검·도입방안 논의

□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16일(금) 오송 트램 시험선*을 찾아 관련 연구개발(R&D) 성과를 점검하고 국내 트램(노면전차, 이하 트램) 도입방안을 논의했다.

* 오송 트램 시험선: 무가선 트램 차량의 성능시험 등 연구개발을 위해 ‘12년에 구축하였으며, 약 1.7㎞의 궤도와 가상교차로 3개소, 검수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

** 무가선(無架線) 트램 : 전기 공급을 위한 전차선 없이 배터리 등의 방식으로 운행되는 트램으로서 도시 미관 우수, 안전사고 예방 및 전력공급시설 미설치 등 장점을 보유

○ 김정렬 차관은 ‘09년부터 무가선 저상트램 연구개발(R&D)을 추진해 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연구진을 만나 국내의 트램 개발 현황을 듣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.

○ 김 차관은 “그간의 연구를 통해 국내 트램 도입을 위한 기술개발과 제도개선에 많은 성과를 이뤘다”고 평가하면서, “아직 트램이 도입된 사례가 없으므로 국내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연구진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”하다고 강조했다.

○ 이후, 무가선 트램을 직접 시승한 김 차관은 “국내 개발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연구원들이 노력이 컸다”고 치하하면서, “연구 성과물의 보급·확산을 위해 국·내외 시장 진출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”을 당부했다.

2018. 11. 19.

국토교통부 대변인